감귤 품종 선택의 기준

1. 품 질

앞으로는 수량보다 품질이 소득증대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사실을 부정 할 수는 없을 것이며, 99년산 부지화와 온주밀감의 가격차에서 우리 모두가 실감한 일이다. 비파괴 선과기에 의한 선과가 이루어지게 되면 판매 감귤의 품질구분은 외형 중심에서 맛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것은 이미 일본 등 외국에서는 일반화 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곧 이루어져야 하고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맛에 의한 선과가 된다고 볼 때 당도 1 Bx 차이에 따라 가격은 50% 이상 크게 벌어질 것으로 추정되어 맛 즉, 품질이 수량 보다 중요해 진다는 것이다. 품질은 맛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품종에 따라 품질 차는 여러 면에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품질의 중심은 맛이므로 앞으로 품종을 선택할 경우는 맛이 좋은 감귤 즉,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당한 품종으로 고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외 과실크기나 모양, 색깔, 속껍질의 두께, 씹히는 맛, 과즙량, 향기 등이 고려되어 품질적으로 우수한 품종이 결정 되는데 현재까지 재배되는 품종중에서는 부지화가 품질이 좋으며 온주밀감에서는 궁천조생이 우수한 편이다.

2. 적지적작

아무리 품질이 좋고 생산성이 높으며 유리한 시기에 출하되는 품종이라도 우리나라의 기상에 적응되는 품종이 아니면 곤란하다. 지금 새로 육성되어 관심을 끄는 많은 만감류 품종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노지 재배가 어려운 품종이 많다. 이런 품종은 아무리 우수해도 노지재배 품종으로는 선택할 수 없다. 또한 적지적작의 개념은 재배 가능·불가능의 문제 뿐아니라 생산성, 품질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것은 경쟁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품종 선택시는 반드시 짚고 넘어 가야 한다.

3. 성숙기와 출하기

감귤은 품종에 따라 성숙기가 다를 뿐 아니라 수확후 후숙 또는 저장력에 따라 출하기가 크게 다르다. 현재의 감귤 출하는 하우스재배 밀감이 5월~10월까지 출하되고 있지만 전체 생산량의 90% 이상이 10월~2월 사이에 출하되고 있다. 그리고 3월~5월은 감귤 출하량이 가장 적은 시기이며 수입오렌지가 이시기에 높은 값에 판매된다.

감귤은 물론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량에 비해 공급량이 적으면 값은 오르고 공급량에 비해 수요량이 적으면 값은 내린다. 감귤 출하가 많은 시기에 출하되는 품종 보다는 출하가 적은 3~5월에 출하되는 품종은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으므로 경영상 유리한 것은 당연하다.

4. 생산의 안정성

생산성과 해거리 정도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같은 값이면 생산량이 많은 품종이 유리하고 그것도 해거리 없이 매년 잘 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품종에 따라서는 해거리 현상이 매우 뚜렷한 품종이 있는가 하면 매년 잘

달리는 품종도 있으므로 재배농가는 품종 선택시 생산량이 매년 일정한 품종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선택해야 한다.

5.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성 보유

소비자는 다양한 기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특성이 무엇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장점이 될지 어떨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21세기의 소비자는 건강과 편리성 위주의 과실을 선호하고 그 외 과피의 색깔이나 모양이 특이한 것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감귤 품종은 암이나 성인병 예방효과가 있는 특정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껍질을 쉽게 벗길 수 있어 편리하며 과피색이 눈에 띄는 주황색이고 과실모양은 둥글 납작한 안정한 모양이 좋다는 등의 기준설정도 필요하고 그에 맞는 품종 선택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6. 내병해충성(耐病害蟲性)

감귤은 다른 낙엽과수나 원예작물에 비해 병이나 해충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감귤재배에서 가장 어렵고 하기 싫어 하는 작업이 병해충 방제이다. 품종자체가 내병성 혹은 내해충성을 지니고 있다면 감귤재배가 쉬워질 뿐 아니라 소비자는 안전성이 높은 과실을 먹게 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득을 볼 수 있다. 방제가 필요 없을 정도의 완전한 내병해충성은 없어도 어떤 특정한 병이나 해충에 대한 저항성은 품종마다 다르므로 방제가 어려운 병이나 해충에 저항성 있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한가지 더 고려한다면 수십년의 재배기간 동안에 치명적인 병해충이 나타나지 않는 품종이 바라진다.

7. 재배의 난이(難易)

감귤은 품종에 따라 손이 많이 가고 관리도 까다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개화·결실도 잘되고 해거리도 없어 재배가 쉬운 것도 있다. 감귤 재배는 규모나 재배 농업인의 관리 능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 될 수도 있으므로 규모가 크거나 능력이 모자란 경우는 재배하기 쉬운 품종을 선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재배하기 까다로운 품종은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소면적에서 집약재배를 하는 것이 경영상 유리한 경우, 남들이 선택하기 꺼리는 품종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생력화가 필연적이고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재배하기 쉽고 기계화에도 별 문제가 없는 품종이 바람직하다.

8. 재배 방법에 따른 적응성

생력재배를 위해 나무 높이를 크게 낮추거나 울타리 식으로 수형개조를 할 때도 수형이 쉽게 흐트러지거나 수량이 크게 저하하는 부작용이 없는 품종도 앞으로는 고려대상이 된다. 그 외 밀식에 잘 적응한다거나 기계작업이 편한 품종 등도 바라진다.

9. 재배 토지에 적합한 품종

품종은 토양조건에 따라 특성을 발휘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토심이 깊고 물 지닐 힘이 좋은 토양에는 세력이 강한 품종은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지만, 척박한 토양의 경우는 세력이 강한 품종이 오히려 유리하다. 따라서 자신이 감귤원을 조성할 토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에 맞는 품종을 택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된다.